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 관광지 나라현에 위치한 아스카무라(아스카촌)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더불어 아스카 시대의 궁터, 고분 등 많은 문화유산이 산증하며, 일본 최초의 사원인 아스카사찰도 자리해 전체 인구 5,500명의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8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지. 유산 가득한 관광지이지만 지역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규제로 하나인 아스카 조례를 만들어 호텔을 비롯한 새로운 숙박 시설 건설을 엄격하게 규제되어 여행객이 체류하기 어려운 모순도 안은 것이다.

"지역의 유산을 지키며 관광객의 체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사람이 살지 않는 오래된 민가를 게스트하우스로 변신시키는 프로젝트가 출발한다. 지역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고민과 그 한계 속에서 지역 활성화의 돌파구를 마련한 아스카무라의 도전을 소개한다.

**이한석 발행인  
지역관광활성화 자문  
문의 : 02-737-1122  
leehs@japanpr.com**

#### 건축제한의 조례를 극복한 빈집 활용의 아이디어

관광산업은 아스카무라 마을의 주요 산업이다. 관광산업은 민관 협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스카무라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난 2011년 5월 '아스카 뉴투어리즘 협의회' 설립해 민간 중심의 관광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빠른 성과를 위해 주목한 것은 수학여행 단체 유치 프로그램. 일본 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학생단체를 대상으로 아스카무라의 지역 주민의 집을 활용한 '홈스테이형 민박'을 전개했고, 마을에 체류하면서 농업 체험, 역사 투어 등, 아스카무라 마을의 장점을 연계한 사업은 실적은 물론 화제성까지 갖추며 승승장구했다.

발행인칼럼  
일본지역활성화  
성공사례 팀방

## 일본 나라현 아스카촌 'ASUKA GUEST HOUSE' 의 도전



홈스테이형 민박사업이 대성공에 이르자 협의회는 마을의 오래된 민가를 게스트하우스로 팔바꿈 해 운영하는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J-roots'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게스트 하우스 분야에 주목한다.

J-roots는 아스카무라 마을의 지방조례

에 따라 대형 호텔을 비롯한 신규 숙박업소 건립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빈집문제와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차원에서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 주목했다.

빈집을 활용한 숙박시설 리노베이션을 통해 J-roots 측은 새로운 숙박시설을 짓지 않고도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묘수를 찾은 것이다.

#### 크라우드펀딩 활용해 투자와 홍보로 흥행 이끌어

오래된 민가를 게스트 하우스로 재탄생

시킨 '아스카 게스트하우스'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민가 개조 비용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해결했다는 점이다.

아스카 게스트하우스는 '아스카무라 오래된 민가 활용 환대 펀드'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1구좌당 31,650엔(약 335,000원)을 설정해 펀딩을 실시했는데 1,300만 엔(약 1억 3765만 원)을 모아 목표액 1500만 엔(약 1억 5880원)에 가까운 돈을 펀딩하는데 성공했다.

아스카 게스트하우스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 외에도 광고효과를 특별히 보았다. 크라우드펀딩 특성상 인터넷에서 진행되고, 펀딩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수 만 명의 사람들에게 광고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지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했지만, 아스카 게스트하우스가 펀딩을 진행하였을 당시(2014년 3월)만 해도 크라우드펀딩 자체가 낯설었고, 더욱이 지방도시의 빈집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일본 사회에서 오래된 민가를 재생시킨다는 프로젝트가 시동된다는 소식에 여론은 물론 언론사로부터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담연히 화제성이 뛰어드며 아스카 게스트하우스는 오픈하기

전부터 대흉행을 이뤘다.

아스카 게스트하우스는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민가투어를 시켜주는 체험형 리워드를 제공했고, 투어에 더해 게스트 하우스 무료 숙박권과 지역 특산물인 수제 드레싱, 지역 브랜드 쌀인 '아스카 쌀', 과육이 큰 땅기로 유명한 지역 땅기풀 종인 '아스카 루비' 등,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 특산품 리워드를 제공해 아스카무라의 농산물과 기공품의 홍보까지 특별히 해냈다.

#### 사회적 빈집문제, 관광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이뤄

아스카 게스트하우스는 주로 배낭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요금은 2,800엔(도미토리 미반 기준)부터 시작한다.

아스카 게스트 하우스는 오랜된 집이 가지는 독특한 분위기를 살리면서, 8개의 객실과 옛 창고를 이용한 단독룸, 남녀별 샤워장 및 화장실, 영어 대응, 와이파이 구비, 공유 주방, 미니바 등, 여행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또한 거실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마련해, 흥보객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식적인 관광이 아닌, 방문객들은 지역 주민들만이 아는 로컬여행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역할까지 한다.

사업 초기에 진행했던 민가 투어를 바탕으로 현재는 아스카 나베전골, 깁잎 초밥

등, 향토음식을 맛보는 역사체험, 아스카 시대 고대 의상을 입어보는 역사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아스카 시대 문화에 매료된 관광객에게 아스카 게스트하우스를 통해 아스카무라 지역만의 깊은 매력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아스카 게스트하우스 운용을 통해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센이다.

오래된 민가를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한 이후 일본 내 젊은 층과 외국인관광객 등, 그동안 아스카무라 마을을 방문하지 않았던 고객층에서 아스카무라 마을을 찾는 비율도 증가했다.

기존의 중장년층 관광수요에 더해 게스트하우스의 주 고객층인 20~40대 고객과, 지방으로의 관광 수요가 많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까지 끌어들이며, 아스카무라의 유동 인구는 이전 대비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 아스카무라 관광과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지방도시 체류를 희망하는 관광객의 수요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요구가 이상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를 낸 결과물이다. 특히 관이 아닌 민간에서 주도한 사업이 대성공을 거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아스카무라 마을은 앞으로 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관광 사업을 정비하고 있으며, 마을을 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 2인용 전기자전거(MICHIMO)의 도입, A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옛 아스카 도시를 재현하여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중에 있다.

| 아스카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

<https://asuka538.wordpress.com>

| 나라현 아스카무라 홈페이지 :

<https://asukamura.jp>



## 'The Beauty Of Simplicity', 프리미엄 시티호텔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샷포로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샷포로는 메리어트 호텔 그룹의 브랜드를 이어받은 프리미엄 시티호텔로, 'The Beauty Of Simplicity'를 컨셉으로 설계된 13층 규모 254실 규모의 호텔이다.

특히 호텔 전반에 걸쳐 인테리어는 물론, 객실에도 심플하면서도 편의성을 강조한 설비가 마련되어 기존의 시티호텔과는 차별화된 고급 감과 페처함을 자랑한다.

특히 부대설비가 매력적이다. 호텔의 중심을 조망하는 '레스토랑 LUONTO'에서는 훗

카이도산 식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한 조식을 제공해 호평받고 있으며, 쉐프 특제 에그 베네딕트는 정식인 베이컨 외에 연어나 시금치 등 토핑도 가능해 인기다.

이밖에도 매일 아침 주방에서 구워내는 크로와상과 계절 샐러드와 과일, 당일 직접 착즙한 오렌지주스 등,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만의 자부심으로 완성한 조식 메뉴를 풍성하게

만나볼 수 있다.

호텔 전반에 걸친 인

테리어는 물론, 객실에 서도 심플하면서도 편의

성을 강조한 설비가 마련되어 기존의 시티호텔



과는 차별화된 고급감과 페처함을 자랑하다. 객실은 총 10개 객실타입이 마련된다. 나홀로 여행객을 위한 18m의 고డ싱글을 끝으로, 연인이나 부부를 위한 23m의 킹베드룸, 트리플룸 등, 편의성을 극대화한 47m의 페밀리 유니버설룸 등, 샤포로 여행목적에 맞는 최적의 객실들을 선택할 수 있다.

호텔 전 객실 금연객

실인 것은 물론, 4K해상도에 대응하는 최신 49인치 LCD TV와 미니

냉장고, 슬리퍼 등이 갖춰져 있으며, 전용 욕실

및 커피/차 메이커 등이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

다. 또한 전 객실 대용 객실 내 초고속 무선 인터넷(와이파이)에 대응하여 비즈니스는 물론 여행에 있어서도 편리하게 인터넷을 즐기실 수 있는 점도 청크 포인트다.

편안한 휴식을 좌우하는 첨대 역시 미국 현지 판매 1위의 체리타(SERTA) 매트리스를 채용하여 특급호텔에 준하는 첨대 컨디션을 제공 중이다.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샷포로는 스스키노와 나조시장 등의 관광명소까지 도보 1분의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는 점도 매력이다. 호텔에 속하는 것만으로 샷포로의 2대 관광명소를 접근거리에서 즐길 수 있으니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톳카이도 여행의 스테이 포인트로 더없이 제격이다.

온천유증기 가득한 신비로운 벳푸시가지를 조망하는 로케이션.

안락하고 여유로운 공간에 더해지는 친절한 서비스와 환대.

호텔 벳푸 파스토랄이 온천왕국 오이타현의 감성과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HOTEL BEPPU  
PASTORAL

### 호텔 벳푸 파스토랄의 매력

Selling point  
01

원천수만을 사용하는  
미인 온천

Selling point  
02

넓고 여유있는  
공간

Selling point  
03

오이타현의 맛을 담은  
향토요리

Selling point  
04

벳푸를 조망하는  
로케이션

호텔 벳푸 파스토랄  
+81-977-23-4201  
[www.pastoral.jp](http://www.pastoral.jp)  
[www.facebook.com/beppupastoral](http://www.facebook.com/beppupastoral)